

▶ 가족·아동

은퇴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관련성 분석

윤 순 덕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연구원)

박 공 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실 장)

서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농촌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도시 은퇴자들을 농촌으로 유치하는 정책들을 실시하여 왔다. 많은 연구자들도 농촌의 환경적 흡인요인이 도시 은퇴인구가 농촌으로 이동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며, 은퇴자의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구명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노인들의 은퇴이동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편이나, 젊은 층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전출자가 많지만 50대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역전되어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전입인구가 늘어나는 경향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은퇴인구의 유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도시은퇴인구의 농촌유치 필요성 인식 및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5,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 자료를 사용하여, 2000년 읍면 이하 지역 138시군의 60세 이상 인구 중 5년 전 거주지가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인 인구비율로 은퇴인구유입비율을, 고용창출(2000년 취업률, 도·소매업종사인구비율 및 1995년도와의 차이)과 지방세수 증가(2000년 주택소유율, 자동차보유율)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산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차분석, 산점도,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은퇴인구유입비율이 0~5% 미만인 지역이 전체 138개 시·군 중에서 69.6%를 차지하였으며, 5~10% 미만 19.6%, 10~15% 미만 7.2%, 15% 이상 3.6%이었다. 둘째, 은퇴인구유입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에서는 취업률 증가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으나 경제활동인구 중 도·소매업종사인구비율($\beta=.38, p<.001$), 도·소매업종사인구비율의 증가($\beta=.19, p<.05$)와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은퇴인구유입에 따른 지방세수의 증가에서는 주택소유율과는 부정적 관련성($\beta=-.72, p<.001$)이, 자동차소유율과는 정적 관련성($\beta=.58,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